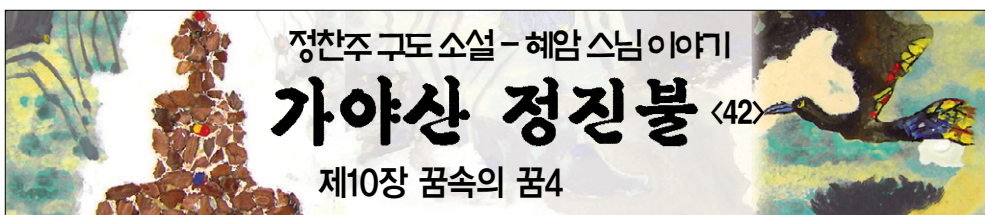


'도' 통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제일 쉽고도 어려운 일



대연거사가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4 시쯤이었다.

진주에서 고속도로와 고령과 합천의 국도, 지방도로를 이용해 지름길로 달렸기에 겨우 4시쯤에 해인사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를 올 때는 늘 흥류동 계곡에 승용차를 대놓고 능산정으로 건너가 바위를 치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안 났다.

가야산은 이미 노랗고 붉은 단풍이 불붙고 있었다. 해인사 경내도 가을 냄새가 물씬 났다. 일주문 너머 어디선가 낙엽을 태우는 연기가 안개처럼 은밀하게 감돌았다. 대연거사는 주차장에서 잠시 다리 운동을 한 뒤 원당암으로 승용차를 끌고 올라갔다.

원당암 주차장은 한산했다. 화장실 옆에 승합차 한 대와 지프차가 한 대 주차돼 있을 뿐 한산했다. 원당암의 공기가 맑고 차갑게 느껴졌다.

대연거사는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는 종무소가 있는 요사채로 갔다. 구면이 된 원주스님은 외출을 했는지 안 보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여성 사무원이 아는 체했다. 그녀 역시 대연거사와 구면이었다.

“원주스님이 안 계시네요.”
“물품 사러 갔습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원각스님은 계십니까?”

“큰스님은 절에 회의가 있어 내려가셨습니다.”
원각스님은 해인사 선원의 유나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당암에 주석하면서 해인사 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들어오시어 기다리지요.”
“괜찮습니다. 밖에 있겠습니다.”

대연거사는 해암스님의 토굴이었던 미소굴로 올라갔다. 해암스님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는 미소굴로 들어가 삼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소굴은 변함없이 있었다. 미소굴 좌측에는 여전히 주장자처럼 생긴 거대한 나무기둥에 ‘공부하다 죽어라’는 해암스님의 법어가 쓰여 있었고, 황토로 지은 토굴의 미소굴은 해암스님의 작은 제구처럼 단아했다.

미소굴 안의 차분한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토굴 안에 유품들도 주장자와 <금강경> 한 권, 검은테 안경 등 하나도 더해진 것 없이 보관되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삼배를 한 뒤 무릎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대연거사는 합장한 채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아직도 작품을 잘 만들겠다는 욕망에 이끌리고, 타성에 젖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네가 나와 한 몸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니라. 그때의 시절이 있을 것이니라. 네가 장좌불와를 멈추지 않고 하는 한 시절이 있으리라.”

미소굴 안의 고요하고 그윽한 분위기는 대연거사를 편안하게 했다. 대연거사가 흘린 좌회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대연거사가 밖으로 나와 요사채로 갔을 때 종무소 안에서 그를 가리키는 소리가 들렸다.

“장좌불와 한다는 거사님이 왔어요.”
“나를 찾던가요?”

“네.”
충청도 역양이 댄 원주스님의 목소리였다. 대연거사도 원주스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반가웠다.

“원주스님.”
“아이고, 거사님이 오셨그만요.”
대연거사는 원주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원주스님은 다탁을 끌어당겨 발호차통을 들고 우릴 준비를 했다.

“원각스님은 큰절에 가셨더군요.”
“아마도 저녁 늦게 올라오실 겁니다. 선방 옥실공사 문제도 있고, 수좌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스님은 잘 계셨습니까?”
“나와 뭐, 맨날 그렇지요. 원당암에서 하룻밤 주무셔야지요. 방은 예전에 머무시던 방으로 가면 됩니다. 마침 그 방이 지금 비어 있네요.”

원주스님이 가리키는 방은 달마선원 밑의 공양간 요사채 위방으로 원룸 형식의 특실이었다. 원래는 원당암을 찾아와 머무는 스님용 방이었다.

“지금도 장좌불와 하시는데요.”
“이제 앉아서 자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오한이 들거나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보냅니다.”

“달마선원에도 용맹정진 동안에는 신도님들이 며칠씩 장좌불와를 합니다만 거사님이야말로 진짜 해암 큰스님의 제자이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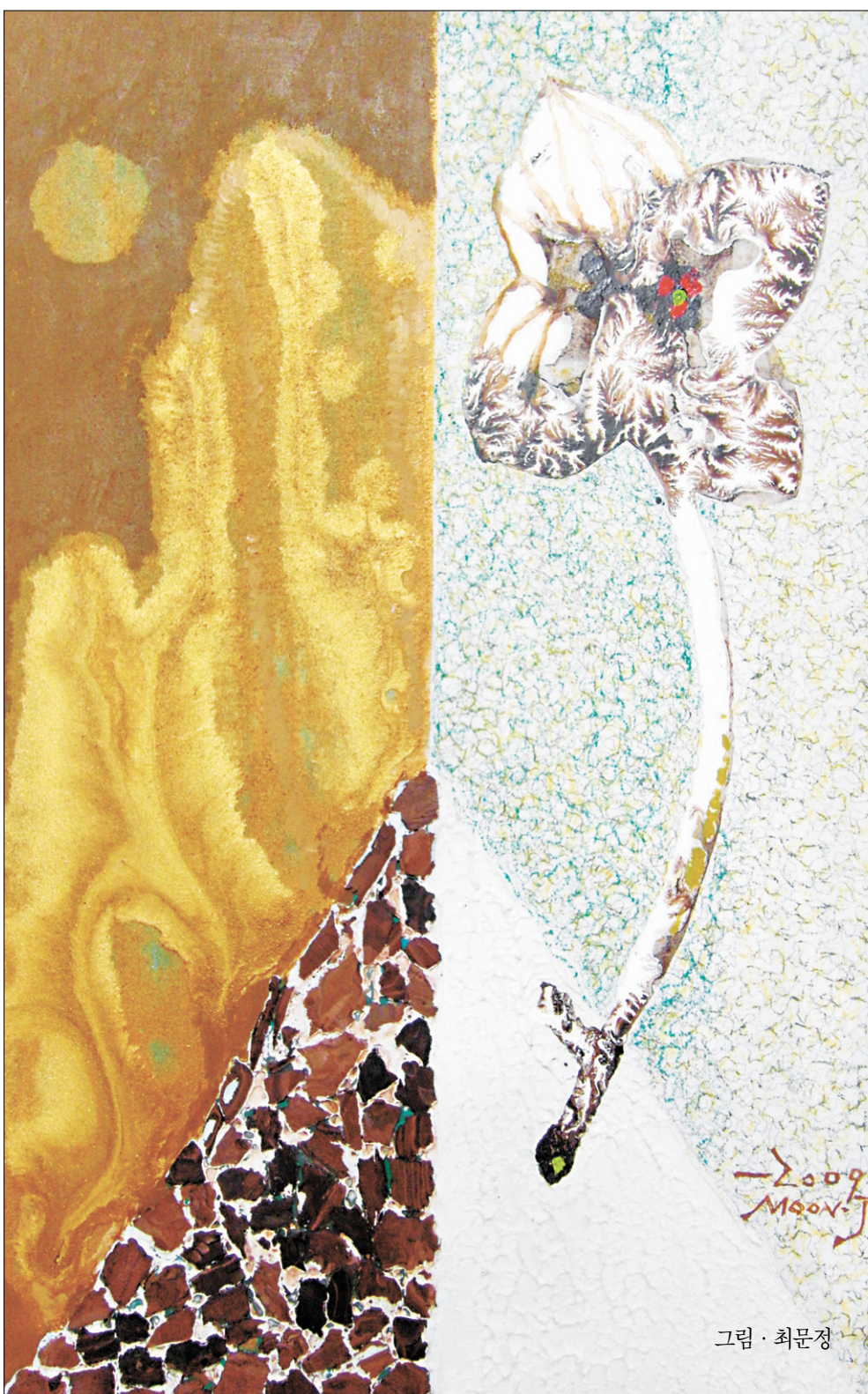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은 누리가 한눈에 탁 트이네
강물은 모여 흘러 창해에 푸르고
해는 봄기운에 어러 태허공에 붉구나
매화는 삼동의 찬눈 속에서도 피어나고
도는 세상만사 중에 있다네
오묘하고도 깊어 말하기 어렵거늘
문자로 부질없이 유무공(有無空) 말들 마소
忘機閑坐巖樓峰 眼豁乾坤法界通
江得溪流滄海碧 日和春氣太虛空
梅開雪上三冬裡 道在世間萬事中
妙妙玄難可說 莫言文字有無空

해암은 경봉스님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간파하고 극락암을 떠나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미 같 곳은 정해져 있었다. 해인사 뒤편 중봉암에서 정진할 것이라고 뒤에 전각스님에게 건넨한 상좌 도림에게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계속>

“ 큰스님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림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

미소굴에 걸린 영전 앞에선 대연 거사

“일생을 일주일로 여기고 정진했던 분...”

해암은 경봉 스님 회상에서 선객들 지도

해암의 높은 선지에 경봉은 해재송지어 격려

그러자 해암스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암스님의 숨결이 아직도 묻어 있는 미소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다. 해암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문득 해암스님의 마음이 무언지 알 것 같았다.

‘아, 한결같이 견성의 길을 확신하고 일생을 일주일이라 생각하고 정진하셨던 분. 일주일일을 넘기고서도 깨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사셨던 분. 일주일일이 지나면 또 다시 일주일... 그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오뎅이처럼 간절하게 정진하셨던 분. 어느 암자나 어느 선방이든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는 무분관으로 여기셨던 분. 참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수치맞는 장사라고 자랑했던 분.’

대연거사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단 하루도 간절하게 살아보지 못한 자신이었으므로 해암스님에게 죄송했다. 단 며칠만이라도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지 못한 자신이었으므로 해암스님에게 미안해 참회했다.

그러나 해암스님의 유품들이 대연거사를 위로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이미 수행자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큰스님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림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대연거사는 차를 몇 잔 마신 뒤 방으로 가 쉬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뻗고 긴장을 풀었다.

‘내일은 반드시 해암스님이 정진했던 중봉암을 가 보리라. 큰스님께서 견성한 이후 가야산에서 처음으로 정진하셨던 토굴이 아닌가. 마침 원각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신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중봉암은 원각스님이 약수암에서 대인공부를 하던 중에 올라가 도림스님의 권유로 머리를 깎고 있다가 해암스님의 제자가 됐던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각스님은 도림스님을 따라 중봉암으로 먼저 올라가 행자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암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1967년 초에 왔었던 것이다. 해암스님이 경봉스님 회상으로 자주 가서 안거를 난 것은 자기경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극락암 조실인 경봉스님 회상에서 해암은 수좌로서 선객들을 지도하였다.

경봉스님이 선방에 들 때도 있지만 스님은 절 안팎의 일로 출타가 잦은 편이었다. 한 해가 다가는 세월에도 불국사 석가탑에 사리 48과를 봉안하는 봉안식에 가 청담과 성철의 권유를 받고 설법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대중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

다. 가끔 선방에 들어 대중들의 경계를 점검하곤 했다.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했으니 어찌 대하면 좋겠는가.”

그날은 대중이 아무도 말하지 않자 해암이 나섰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방이 찌렁찌렁하게 울림 만큼 할 했다.

“아악!”
그러자 경봉스님이 각자 공부에 대한 소감을 말해 보라고 했다. 다시 해암이 나서서 대답했다.

“언어문자는 학습하기 쉬우나 도를 통하는 것은 천상천하에 제일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몸을 잊고 법을 구하는 용맹정진 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경봉스님이 봉통홍중공(峰通紅中空)의 운자(韻字)를 주어 선시를 짓게 하였다. 대중이 모두 머리만 조아리지만 하자, 해암이 그 자리에서 계송을 지어 읊었다.

영산회상의 영축봉이여
구름 한 점 없으니 만리에 통했다
세존께서 들어 보이신 한송이 꽃은
천겁이 다하도록 길이 붉으리
꽃을 들 때 내가 참석하였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어 불속에 던졌으리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언어마저 끊겼는데
진실한 본래의 성품은 공하되 공하지 아니하다.
靈山會上靈鷲山 萬里無雲萬里通
世尊拈花 一花歷劫而長今紅
拈花當時吾見參 一棒打殺投火中
本來無物亡言語 天真自性空不空

경봉스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암의 선지(禪旨)가 뛰어났던 것이다. 어느 새 조실인 자신의 경계에 와 있었던 것이다. 경봉스님은 즉시 대중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해암수좌에게 절을 올리거라.”
그해 안거 때도 경봉은 해재송지를 지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1966년 동안거 때는 특별히 해암을 위해 지어 격려했다.

삼기 있고 한가로이 축서봉에 앉으니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중사의 선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일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 절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절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